

간성읍

간성읍은 법정리 17개 행정리 33개리 116개반을 형성하고 있다. 총면적은 179.95km²이다. 그리고 주민 미거주지역인 수동면의 면적은 144.07km²이다. 남천과 북천 유역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 경형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하리(리,2리), 신안리, 동호리, 봉호리, 상리, 간촌리, 교동리, 해상리, 광산리, 어천리, 장신리, 탑동리, 금수리, 진부리, 흘리, 탑현리로 구성되어 있다.

※간성읍에서 발생하는 아기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민기자를 모집한다. (문의 : 681-1666)

해상 2리 농촌건강 장수마을 지정

지난 21일 마을회관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 3년간 연5천만원씩 지원

간성읍 광고모집
☎681-1666~7

간성읍 해상2리(이장 김동수)가 고성군에서 다섯번째로 농촌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됐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1일 해상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건강 장수마을 지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선정된 마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고품질 문제 대응 및 노년생활문화 기반 조성사업비로 3년간 연 5,000만원씩을 지원한다.

김동수 이장(54세)은 “농촌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된 것에 대해 관계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마을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사업 시행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 함명식 농촌지원식품 담당은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가지 아이템을 개발해 사업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수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현재 고성군에는 간성읍 장신리, 거진읍 대대1리, 현내면 마달리, 토성면 신평1리 등 4개소가 농촌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돼 있다.



지난 21일 해상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농촌 건강 장수마을 지정 사업설명회에서 함명식 담당이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읽고난 고성신문은 이웃과 함께 보세요

쇠고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드시는 것이 긴급방역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를 돕는길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와는 상관없이 ...
쇠고기,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1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 구제역은 각종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과는 다르게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즉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구제역에 걸린 소, 돼지를 옆에 가더라도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은 0%입니다.
- 2 오염원은 모두 살처분·매몰 조치됩니다!**
 - 구제역에 걸린 소나 돼지 등 우제류는 전부 살처분 매몰되고, 도축장에서는 질병 우려만 있어도 도축을 하지 않으며, 도축시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걸린 고기는 유통이 될 수 없습니다.
- 3 만약에 구제역 걸린 가축의 고기를 먹었다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소, 돼지 등의 가축은 도축 후 예냉 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되며, 그 과정에서 그 고기의 산도(pH)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연 사멸됩니다.
 - 그리고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50℃ 이상에서 사멸) 요리하는 과정에서 사멸됩니다. 구체적으로 56℃에서 30분, 76℃에서 7초를 가열하면 사멸합니다.

Lively Gangwon 강원도

제5기 위원장에 이호철씨

간성읍 주민자치위원회 총회 개최



지난 18일 간성읍사무소에서 간성읍 주민자치위원회 총회가 열렸다.

간성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 간성읍사무소 2층 다목적실에서 총회를 열고, 제5기 위원장으로 이호철씨를 위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4기 정문식 위원장과 손미자 사무국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정문식 직전위원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부위원장으로 김

거광전력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기탁



간성읍 상리 소재 거광전력통신공사(대표 김동집)는 지난 21일 고성군을 방문해 희망 2011 나눔 캠페인 성금으로 300만원을 기탁했다.

박승근 기자

박승근 기자